

미리보는 2016 스포츠 7選



왼쪽부터 손연재, 양학선, 진중오.

가자! 올림픽

리우 올림픽 8월 개막...한국 4회 연속 '톱 10' 도전



지구촌이 뜨거운 스포츠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제31회 하계올림픽이 내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Live your passion(열정적으로 살아

라)'를 슬로건으로 내건 리우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설 이후 122년 만에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다. 사상 최대 규모인 206개국, 1만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총 28개 종목에 걸린 금메달 306개를 놓고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4회 연속 종합메달 순위 '톱 10' 한국의 목표 달성을 주도할 선수로는 사격 남자 50m 권총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

는 진중오(케이티), 남자 도마의 양학선(수원시청), 여자 양궁의 기보배(광주시청),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 등이 꼽힌다. 손연재(연세대)는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하고, 신실 종목인 골프도 여자부에서 한국의 강세가 예상된다. 도핑 양성반응으로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된 박태환(26)의 출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평창동계올림픽 D-770...경기장 공정률 50%·2월 테스트 이벤트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7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6개 신설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도 50.2%를 보이고 있고, 2016년 2월부터 이들 경기장을 대상으로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와 강릉 코스타라 클러스터의 12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 가운데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6곳은 새로 건설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기존 경기장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집계한 새로

짓는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12월 현재 50.2%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경기장 가운데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은 공정률이 25.1%지만 내년 테스트이벤트 개최를 위한 2개 코스 조성을 끝냈고, 강릉 컬링센터는 내년 말까지 보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어지는 총 28개(올림픽 23개·패럴림픽 5개) 테스트 이벤트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간다! 태극전사



박병호·김현수 가세 'ML 강타' 준비 끝

2016년 메이저리그 무대에 설 가능성이 큰 한국인 선수는 5명이다. 이중 4명이 타자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추신수를 제외한 타자 3명이 한국프로 야구에서 다년간 활약한 토종 스타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하고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른 박병호는 포스팅으로 미국 무대에 입성했다. '타격기계' 김현수(볼티모어)는 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FA(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고 메이저리그 구단에 입단하는 기록을 남겼다. 1년 전

강정호(피츠버그)가 한국인 야수 중 최초로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행을 확정하며 문을 열었고, 이번 겨울에는 두 명의 한국인 타자가 메이저리그로 향했다. 이제 한국 팬들은 여러 지구의 메이저리그를 응원할 수 있다. 김현수가 뛰는 볼티모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 지구에 속했다.중부지구에는 박병호가 뛰고, 서부지구에는 만행 추신수가 버티고 있다. 강정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활약한다. 여기에 좌완 투수 류현진 소속팀 다저스는 서부지구에 속해 있다.



기성용·손흥민·이청용 'EPL 강슛'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부터 분데스리가를 넘어 스페인·포르투갈·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태극 전사들은 유럽 무대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손흥민은 2016년에는 자신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이적 초반의 기대치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는 골을 폭발시킬 체력을 갖추고 있다. 스완지시티 기성용은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팀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일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4년8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 끝을 넣은 이

청용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아우구스부르크 3인방이 다시 뭉쳤다. 구자철이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고, 지동원은 지난 시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교체로 출전하며 기량을 펼쳐 보이고 있다. 홍정호는 부상에서 회복한 뒤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기에 김진수(호펜하임)가 선발로 출전하며 주전을 꿰찰 준비를 하고, 박주호(도르트문트)도 이적 후 팀내 주전 경쟁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전인지 가세...LPGA 한국 강세 잇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2016년에는 더 뜨거워진다. 해마다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해온 한국여자골프는 2015년 박인비(27·KB금융그룹), 김세영(22·미래에셋), 최나연(28·SK텔레콤) 등 8명의 선수가 14승을 올리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2016년에는 또 한 명의 스타 전인지(21·하이진트)가 미국 무대에 합류한다. 한국투어에서 뛰던 전인지는 2015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전인지의

가세는 기존 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전망이다. 한국여자골프의 에이스로 우뚝 선 박인비가 국내 선수는 물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와 별일 경쟁도 관심을 끈다. 전인지와 박인비 못지않게 김세영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줄 태세다. 한국 투어의 톱 플레이어 전인지의 가세, 기존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에다 올림픽 티켓 경쟁까지 겹쳐지면서 2016 LPGA 투어는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연다! 새 시대

엘리트 체육·생활 체육 3월부터 통합

한국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2016년 3월부터 통합 관리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5년 만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 관리되는 것은 1991

년 국민생활체육회 창립 이후 25년 만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2016년 3월2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단일 단체로 재탄생하게 된다. 두 단체를 통합하기로 한 것은 체육단체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 발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법정 시한인 3월27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10월 통합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통합 회장 선출까지 회장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 회장 체제를 이루기로 했다. 또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정했고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 야구 110년만에 돔구장 시대 개막

2016년 새해에 야구와 축구, 골프 등 각종 종목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야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904년 한국에 도입된 이래 110여 년 만에 돔구장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그라운드 안에도 변화가 생긴다. KBO리그는 2016시즌부터 파울 타구에

대한 심판합의판정을 도입할 전망이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에선 리그 운영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시즌부터 스피릿리그 기간을 1~2경기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로축구에선 또 내년부터 2군 선수들이 경쟁하는 'R(Reserve) 리그'가 부활한다. 2군리그 제도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됐지만 비용상의 이유로 2012년 폐지됐다. 골프에선 2016년부터 '롱 피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선수들이 규칙 위반 사실을 몰라 벌타를 스코어카드에 적어내지 못할 때는 '스코어카드 오기'로 실격 처리하지 않고 벌타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명문화된다. 한국 프로배구는 2016-2017시즌부터 남자부에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제도를 도입한다.